

망견·망집 등 인간은 약점에 휘둘리나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옮김) (정병조 옮김)

17. 악마(惡魔)의 시험 ④

인간의 약점과 싸우는 사람들
 붓다의 설법가운데 새롭게 주의를 환기 시키고 싶은 설법 중 하나가 <악마상응(惡魔相應)>이란 이름의 경전들이다.
 예수의 언행을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그가 복음전도에 앞서 황야(荒野)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았다는 한 구절은 자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그때 예수는 40 낮 40 밤의 단식에 의해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 만일 신의 아들이라면 명(命)하여 이들을 빵으로 변하게 하라”라고 굶주린 예수에게 악마가 속삭인다. “사람이 사는 것은 빵 만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예수의 대답이었다. 그 대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킨다.
 악마는 또 예수를 도시로 데리고 가서 궁전 높은 곳에 서게 하며 “그대 만일 신(神)의 아들이라면 그 몸을 밑으로 던져보라”라고 말한다. 그것은 교만(驕慢)에 유혹이었다. “주(主)인 그대의 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예수의 대답도 역시 인상적이다.
 다시 또 악마는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나라의 영화(榮華)를 보여주면서 “그대 만일 없던저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모두 그대에게 주리라”라고 시험한다. 그것은 권세의 유혹이었다. 그것에 대답하여 예수는 “사탄이여 물러가라, 주(主)인 그대의 신을 경배하며 다만 이것에만 봉사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이 대답도 역시 의연(毅然)하며 훌륭하다.
 이러한 유혹과 예수의 대답이 자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인간의 약점과 종교적 생활의 의연한 태도가 거기에 신기한 명암(明暗)을 이루면서 뚜렷하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 있어서는 악마와 같은 착상(着想)은 적합한 것이 되지 않는다. 만일 사악(邪惡)을 인격화한 자로서 악마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믿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망견(望見)의 소산(所産)으로서 불교가 배척하고 있는 점이다. 그럼에도 붓다는 자주 악마(mara) 혹은 악마파순(惡魔派旬, mapima)이란 낱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며 사용한 말이었을까.
 어느 때 한 제자가 붓다를 향해서 질문한 일이 있었다. “대덕이시여, 악마를 악마라고 설명한다면, 무엇을 악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제자의 이름은 라타(라타)라고 하였다. 붓다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여, 이렇게 가르쳤다. “라타여, 색(色, 물질)은 마(魔)이

다. 수(受, 감수)는 마이다. 상(想, 표상)은 마이다. 행(行, 의지)은 마이다. 식(識, 의식)은 마이다. 라타여, 이와 같이 관찰함으로써 유문(有聞)의 성제자(聖弟子)는 색(色)에 있어서 염리(厭離)하며 수(受)에 있어서 염리하며...”
 그것은 요컨대 인간의 망견(妄見)과 망집(妄執)을 가리키면서 악마라고 하며, 인간의 약점에 의한 행동을 마(魔)라고 하며, 이런 것을 극복함으로써 정견(正見)이 이루어지며 이런 것을 염리(厭離)함으로써 해탈(解脫)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하는 바는 평생시 붓다의 설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붓다는 왜 세상스럽게 악마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 그것은 아마 실천적인 요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결코 인격적인 존재로서 악마의 존재를 믿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극복되어야 할 망견, 망집, 해탈(解脫) 등의 인간적 약점은 매우 무서운 적(敵)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악마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꾸짖는다. 그런 것이 그에게 있어서도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주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현대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제 <악마상응>의 여러 경전을 보면, 거기에도 또 붓다와 제자들의 인간적 약점과 그 종교적 생활인으로서의 의연한 태도가 대조적인 명암(明暗)을 이루면서, 뚜렷하게 떠오른다.



팔상성도 중 여섯번째인 수허행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부처님을 마왕 파군이 방해하고자 했으나 부처님은 이를 굴복시키고 깨달음을 이었다. 마지막 유혹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한 붓다의 대답도 역시 계문(偈文)으로써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고행을 수행하여 오면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물에 올라온 배의 로타(舵)처럼 모두 이(利)로 물 것 없었다. 나는 계(戒)와 정(定)과 혜(慧)에 의하여 남김없이 이 보리의 길을 닦으며 이제 무상(無上)의 청정(淸淨)에 도달하였다. 파괴자여, 그대는 폐(敗)하였다.
 사람들은 붓다의 깨달음이 별로 어려움 없이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그 동안의 노고(勞苦)라고 한다면 엄격한 금욕(禁欲)의 세월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칭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붓다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위험은 도리어 그 금욕(禁欲)의 생활을 버리고 떠나

나나 떠나지 않는나를 결정하는 순간에 있었다.
 그 시대는 고행(苦行)의 깊은 미망(迷妄)에 잠겨 있었다. 상식(常識)은 그의 엄숙한 금욕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미망을 빠져나오며 그 상식을 초극(超克)하는 어려움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다. 그가 금욕(禁欲)의 불합리함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은 그를 사치(奢侈)에 빠진 사람이라 하여 모두 입을 모아 비방하였다. 그는 그때 단 하나의 이성(理性)으로서 전 세계의 상정(常情)에 항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능히 대각(大覺)을 성취한 후에도 그 싸움의 승리는 여전히 불안한 것이었다. 어쩌면 고행을 버린 것은 역시 잘못된 일이 아니었는가. 그러한 불안이 돌연히 그의 가슴속을 스쳐가기도 하였다. 그 순간이 하나의 악마 이야기로서 그려져 있는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유석질의론 下권 해제

천하를 통합한 한 가지의 도이고, 변화를 교묘히 함은 한 기운이며, 만물을 고르게 함은 한 이치이다. 그러나 알고 깊음이 같지 않으므로 성인의 가르침이 셋으로 처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진공(真空)이라 말하니 성체(性體)를 들어서 말함이고, 노교(老敎)에서 곡신(穀神)이라 말하니 변화를 밝히서 말함이고, 유교(儒敎)에서는 대본(大本)이라 말하니 사물을 의지해서 말함이다.
 지극히 커서 내가 없고, 지극히 깊어 작위함이 없고, 지극히 비어 시작이 없고, 지극히 신령하여 다함이 없다.
 물(物)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종시(終始)가 있으며, 물에 이르러 앞의 극치(極致)에 이르면(格物致知) 현상적으로는 만가지가 드러나 근본 체성은 한 이치이므로 대본(大本)이라 말한다.
 삼교(三敎)가 비록 다르나 도는 곧 하나이니, 비유하면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저 땅이 함양(含養)하는 것을 진공(眞空)이라 말하고, 종자에 썩어 나는 것을 곡신(穀神)이라 말하고, 가지와 잎이 뿌리인 것을 대본(大本)이라 말할 수 있는데 뿌리·줄기가

대교(華嚴大敎)를 근본법륜(根本法輪)이라 말함은 진실로 뜻이 있는 것인데 방자한 뜻으로 휘방하고 배척하는 자는 나무로써 뿌리를 뽑음과 같으니, 비록 오랫동안 영화롭고자 한들 그것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옛날 불교를 폐지했던 삼무(三武) 이후 불교를 휘방하는 자가 대대로 한 두 사람이 있긴했지만 발길을 돌리기 전에 재앙을 당했으니 어찌 증험이 없겠는가. 세간의 죄없는 사람에게 멋대로 휘방을 가해도 오히려 형벌과 재앙을 부르는데, 더구나 까닭없이 경박하게 대성인을 휘방함이었는가.
 계는 대략 다섯이 있다. 첫째 산목숨을 죽이지 않음은 인(仁)의 단서를 여는 것, 둘째 도적질하지 않음은 의(義)의 단서를 여는 것이며, 셋째 음란하지 않음은 예(禮)의 단서를 여는 것이며, 넷째 허망한 말을 하지 않음은 신(信)의 단서를 여는 것이며, 다섯째 범새나 채소나 술을 마시지 않음은 지(智)의 단서를 여는 것이다.
 오상(五常-仁義禮智信)이 인륜(人倫)의 대도(大道)라고만 말하고 단서를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마치 궁실(宮室)

삶의 극치에 이르면 근본은 한 이치

三敎가 다르나 道는 하나로 돌아간다

서로 의지하여 후토(後土)에서 배양되면 꽃과 열매가 번성하고 무성함이 있어 봄·가을에 흥년이 들지 않음과 같다.
 삼교가 서로 의지하여 교화가 천하에 이루면 자연의 음양이 어긋나지 않고 바람과 비가 적시에 순조로워 사람과 신이 기뻐하고 화기로우며, 백성의 풍속이 악하지 않아서 군신·상하가 그 분수를 알지 않으며, 물고기와 사슴, 곤충까지도 각각 그 천성을 지킨다.
 이와 같다면 치평(治平)의 세상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불교·노교가 세상에 이익이 없다 말하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한 힘이 골육(骨肉)의 몸도 성천(性天)에서 근원하였으며, 오행(五行)을 바탕으로 아홉 구멍이 열리고, 육식(六識)을 갖춘 이후에 삼강오상·군신부자의 도를 알아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이로부터 점진하는 것인데 그 형질·심성을 잃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하고자 한다면 그 누가 얻겠는가.
 유교로서 노교를 배척하는 자는 꽃만 감상하고 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함이고, 노교로서 불교를 배척하는 자는 나무를 기르면서 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함이니, 지체대수(地體대수) 말할 수 있겠는가. 화염

은 아름답게 해놓고 문호(門戶)를 두지 않음과 같으니, 그 들어감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부처님이 오계(五戒)로 오상(五常)의 단서를 열어 보이심은 그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들이 다 깨달아 들어가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에 이르게 한 까닭이다.
 대체로 한 기운이 이미 나누어진 뒤에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물(物)이다. 현상적으로는 만가지가 다르나 근본은 하나이니, 묘명진성(妙明眞性) 가운데서 함께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품류(品類)가 비록 다르나 본성은 하나이다.
 유자(儒者)의 살생에 있어서 말하기를 “충충한 그물을 웅덩이나 연못에 놓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다”하며, 도적질에 있어서는 말하기를 “함부로 간직함이 도적질을 가르침이다”하며, 음란함에 있어서 말하기를 “덕(德) 좋아하기를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했으니, 그렇다면 무엇을 금지함이 있겠는가. 이것은 얼음과 석탄처럼 반대된다. <끝>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지구촌 천지개벽과 각종 질병을 넘어 만법을 다스릴 수 있는 경신도법의 빛으로 이생에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려 수명이 늘어나고 도인, 신선, 선녀 일류스승 되는 관심도법의 근본인 타심통 대법회

경신도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최대이슈 원, 방, 각 해인도법의 잣대를 얻어 하늘 땅 각종 종교에 감춰진 마음을 생명의 빛이 업에 쌓여 수행마장, 기도마장, 범마장으로 말과 글, 염불, 목탁, 참선, 각종수행으로는 마음과 생명이 들어 다니는 현관을 찾지 못하는 초우주에 감추어진 마음에 문을 귀신도 모르는 진법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빛으로 이생에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려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성품 즉 견성,성불을 모든 국가와 민족 넘어 노소 학력 나이 관계없이 비구니 보살도 성불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초능력 하늘에 도법을 부여받은 천룡진인 환생 태일대사 용천사 경신도법으로 각종질병과 지각변동으로 만법을 다스리는 법과 각종 질병과 병명없이 고통받고 현재 지는 신도 자기대에서만 버리고 도인만이 병겁을 다스리는 인류스승으로 평생 직업 전법사, 포교사, 철학운명사, 건강관리사 자격을 얻어 포교원 선원을 개원하는 일류 스승되는 관심도법 타심통 대법회에 동참하여 빛을 보는 도통 군자 일류스승 되소서 이 도통은 천서없는 허주에 빙의되는 것이다.



한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제일 :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해시
- 해제일 : 2015년 6월 13일 토요일 해시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무박 2일
- 입제비 : 5만원 (농협 029-02-167866 곽한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 3층 천지공사 유불선 심경신도통회 총본산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용천사 032)502-6625,6619 / 010-9292-3110

○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부평역하차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 부평시장역하차 1번 출구쪽 하이마트에서 시장쪽 횡단보도 건너 착한낙지 지나 사거리 아울렛DC 백화점 3층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역사예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